



보도시점 2026. 3. 27.(금) 10:30 배포 2026. 3. 27.(금)

<세계보건기구>

식약처·WH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식이조사(TDS) 협력 성과 공유

- 우리나라 주도의 총식이조사 워크숍 결과보고서 WHO 공식 홈페이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워크숍’의 결과보고서를 WHO 누리집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총식이조사’는 국가별로 국민이 대표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을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6월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규제기관 및 캐나다, 독일 등 24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총식이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별 총식이조사 방법과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총식이조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대한민국, 뉴질랜드,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몰디브, 베트남, 사우디, 수단,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예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호주, 홍콩

이번 결과보고서는 ①국제적 규제 조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였고, ②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총식이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식품 안전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③교육·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총식이조사 수행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과보고서는 WHO 공식 누리집*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 WHO : <http://www.who.int/publications>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일반홍보물

식약처는 이번 결과보고서 공개가 **총식이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WHO 등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 정책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과	책임자	과 장	장문익 (043-719-4451)
		담당자	연구관	백옥진 (043-719-4452)
협조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책임자	과 장	문귀임 (043-719-2411)
		담당자	연구관	정지윤 (043-719-2421)



MEETING REPORT

1st Asia-Pacific Regional Workshop on Total Diet Studies

Seoul, Republic of Korea
18–19 June 2025 (on-site workshop)
9–11 June 2025 (online workshop)

Conven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F THE REPUBLIC OF KOREA

